



사진기자의 땅짓

함박웃음과 함께 솟구치는 가족 사랑

설날, 박물관 나들이에 나서 즐겁기... 설날, 박물관 나들이에 나서 즐겁기...

침체된 경기는 풀리지 않는데, 또 힘... 침체된 경기는 풀리지 않는데, 또 힘...

I love MY student



김정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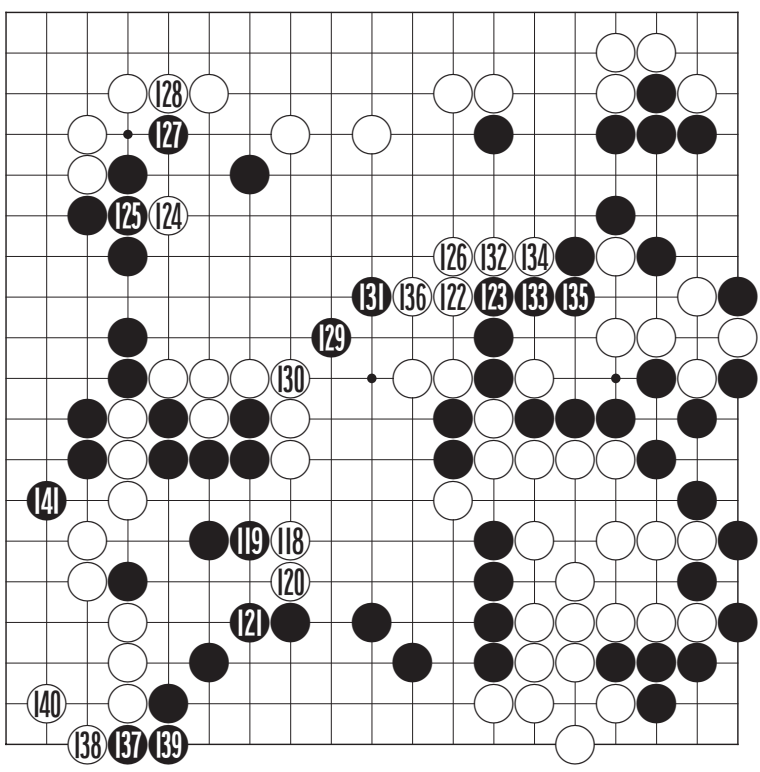
〈광주관천초교 교사〉

지난 15일, 16년 교사 경력 중 벌써 아홉 번째 졸업식을 치렀다. 애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 교실에 남아있다 보니 문득 1991년 초임 시절이 떠올랐다.

졸업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

생 120여명의 조그마한 학교였다. 학교 관사에 살면서 휴일 근무 60% 이상을 독차지하는 안방마님(?)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배지 아닌 유배생활을 하게 됐다.

들었던 졸업가와 스승의 노래, 교가는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. 졸업식이 끝나고 참석할 할머니 한 분이 참석할 학부모들로부터 꼬깃꼬깃한 돈을 건네서 양복 1벌 사 입으라고 호주머니에 넣어주던 촌지 소동(?)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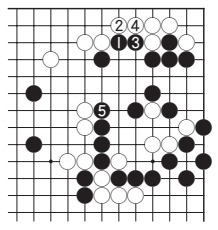
제희 강주시 교육감님 바둑대회 중등부결승전

통한의 패착

9보(118~141)

白 윤용희 <비이중1>

黑 권재규 <문성중1>



<참고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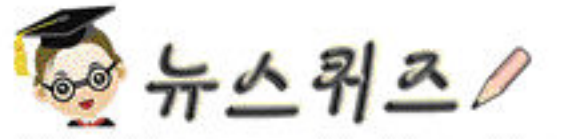
흑의 맹추격으로 차이가 많이 좁혀진 국면이다. 초반에 위낙이득을 본 백이 아직 도박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.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.

최철한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18기 기성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김승준 9단을 8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도전을 따냈다.

바둑소식

최철한, 기성전 도전권 획득

최철한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18기 기성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김승준 9단을 8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도전을 따냈다.



52. 제57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감독의 '사이보그'만이 관객이 특별한인 알프레드 비우어상을 수상했습니다.
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상성전자 고급...
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(음 1월 3일 乙酉)

- 36년생 주번의 도움으로 諸事가 풀려간다. 48년생 이성과 배상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다. 60년생 인생의 후반전 다시 한번 달려보라.

Advertisement for '더마플라스트 밴드' (DermaPlast Band) with a photo of a woman and child.

Table with 4 columns: English, Korean, Chinese, and Japanese. Each column contains a phrase and its translation in the respective language.